

## 한국복식의 색채특성과 문화기호적 해석에 관한 연구(1)

이 지 현\* ·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조교수\*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stume Colors and the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Semiotics(1)

Jee-Hyun Lee\* · Young-In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2005. 9. 15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stume colors according to the diachronic stages of culture(Chosun dynasty, Modern times, Present age) and to interpret the meanings of costume colors as a cultural code. To examine the colo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ultural change,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qualitative analysis were us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1535 color samples were collected and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on the sensitive aspect of Korean costume color, 340 color names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1.'Red' and 'Blue' were preferred throughout the periods. In Chosun dynasty, the higher saturation of 'Red' and 'Blue', its symbolic meanings were more emphasized. 2. In the Modern times, 'Pink' was more distinctive than 'Red'. 'Pink' meant that the ecdysis of the traditional view of color. 3.'Yellow' of the low Saturation was used frequently in Chosun dynasty but in the Modern times, the use of 'Yellow' increased and the high saturation were used. In the Present age, the frequency of 'Yellow' was reduced relating to the increasing use of 'Brown'. 4.'Neutral Color'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diachronic stages of the culture. 'Black' was increased and had a big meaning in the cultural aspect of the Modern times. In the Present age, 'Gray' and 'grayish colors' were increased related to Technology, Metals and High rise buildings.

Key words: Korean costume colors(한국 복식색채), cultural code(문화 기호), Chosun(조선), modern times(근대), present age(현대)

## I. 서론

인간이 만들어낸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문화(Culture)'는 오늘날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며 우리 삶의 질을 의미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생활 속에 깊숙이 수용되어 있다. 문화는 한 집단 내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확대되어가는 가치로서 물질적 특성 외에 상징과 의미라는 관념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추상·구상의 표현체계를 통해 나타나며, 표현체계는 그 문화의 구성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로 구성된 상징을 통하여 가시화된다.

문화의 미시적 범주 중 하나인 복식문화는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의복 및 장신구 등을 통하여 집단의 관념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매우 상징성이 강한 문화의 약호(code)로 볼 수 있다. 즉, 집단의 특정 문화권에서 형성되고 변화해온 민족복식은 그 민족의 생활상과 미적 감성,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사고의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약호인 것이다. 따라서 특정 민족복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민족문화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속에 내재된 민족의 관념 체계와 감성의 변화를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복식문화의 하위 범주로서 복식디자인의 요소 중 가시성과 상징적 특징이 강한 복식색채 역시 문화의 약호로 볼 수 있다. 색채의 이미지와 상징성은 한 문화권에서 같은 의미로 이해되며 각 문화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색채를 통한 감성의 공유와 미의식의 표현은 특정 민족과 문화권의 특징을 유추해낼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색채를 통한 감성의 표현과 공유는 색채의 물리적 속성 외에 색채의 언어적인 측면에도 반영된다. 즉, 특정 민족과 문화의 색채에 대한 관념과 감성에 대한 체계적인 표현인 색이름은 색채의 시각적인 특성과 마찬가지로 특정 민족과 문화의 색채에 대한 관념과 그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약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상적 문화의 구체적 약호로서의 복식색채 그리고 언어적 약호인 색이름은 특정 문화와 관념의 상징적 기호(記號)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들의 의미작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 연구하는 것은 특정 민족의 문화적 특성과 고유성을 유추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요소 중 상징적 특성이 강한 복식색채를 통하여 조선의 유교 문화에서부터 서양 문화의 유입에 따라 변화되어온 한국 복식색채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저변에 깔린 한민족의 색채특성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복식색채의 특성과 문화기호로서의 의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전체 연구 중 1차 연구로 복식색채의 총체적인 특성 분석을 위하여 복식색채의 물리적 속성의 분석 뿐 아니라 언어적 측면을 통한 추상적 색채감성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한국 복식색채의 문화기호로서의 의미작용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조선(16-19세기말), 근대(1900-1940년대), 현대(1960년대-2003년)의 세단계를 포괄한다. 연구의 대상은 조선복식의 경우 전통복식의 양식이 성립된 조선 중기 이후의 여성 의례복과 평상복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근대복식은 의례복 외에 평상복에도 한복과 양복이 병립하던 과도기적 복식문화의 특징을 감안하여 양장과 한복을 동시에 분석하였고, 현대복식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른 한국 복식색채의 특성을 분석한 방법은 크게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나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수집된 색채데이터는 총 1535색으로 조선이 335색, 근대가 379색, 현대가 821색이었다. 색채 수집은 측색기를 이용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숙명여대 박물관의 유물 측색데이터(191색)와 국립민속박물관<sup>1)</sup>, 숙명여대 박물관<sup>2)</sup>, 고려대 박물관<sup>3)</sup>, 이화여대 박물관<sup>4)</sup>, 경기도 박물관<sup>5)</sup>, 석주선박물관<sup>6)</sup>, 미국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소장품 전시도록<sup>7)</sup> 등 도록 사진자료 측색(710색)을 통

하여 수집하였다. 현대 복식의 색채데이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대표적인 패션잡지인 「의상」<sup>8)</sup>, 「의상계」<sup>9)</sup>의 이미지를 측색(173색)하여 수집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2000년까지는 「섬유 패션 분야의 활용색채 조사분석」(한국컬러 앤드 패션트렌드 센터, 2003)<sup>10)</sup>의 측색 자료(335색)와, 이신우<sup>11)</sup>, 이영희<sup>12)</sup>의 작품집 사진자료 측색(80색), 「월간 멋」<sup>13)</sup>의 박항치, 이신우, 설윤형, 구윤희 등의 작품 사진(179색)과 2000S/S~2003 F/W S.F.A.A. 및 prêt-à-porter컬렉션 제시된 설윤형, 이영희, 진태욱, 이상봉 등의 작품 사진(324색)<sup>14)</sup>을 중심으로 색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색채데이터의 수집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복의 전체 또는 1/2이상 사용된 색채는 주조색으로 분리하여 측색하였으며 의복의 배색 부분 및 자수, 문양, 모자, 벨트 등의 색채는 보조색으로 분리하여 측색하였다. 수집된 색채는 H V/C값과 CIE L\*a\*b\*값을 분석하여 색상, 색조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문화유입과 변화에 따른 한국 복식색채의 정성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색이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관용색명의 분석에 사용된 색이름 데이터는 총 340개로 조선시대의 색이름이 117개, 근대의 색이름이 61개, 현대의 색이름이 162개였다.

대표적 관용색명의 수집방법은 조선의 경우 '한국 전통 표준색명 및 색상'(국립현대미술관 1992)<sup>15)</sup>의 색상 78색과 현재 전통 표준색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김영숙 1988<sup>16)</sup>, 김묘진 1992<sup>17)</sup>, 전은주 2000<sup>18)</sup>, 박진숙 2000<sup>19)</sup>)를 바탕으로 고문헌(本草綱目, 林園經濟志, 朝鮮王朝實錄)에 출현 빈도가 높은 색이름을 포함하여 총 115개의 색이름을 선정하였고, 근대의 경우 1900년부터 1940년대까지 신문과 잡지에서 복식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색이름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대표적 여성지는 「가당잡지」<sup>20)</sup>, 「신여성」<sup>21)</sup>, 「별건곤」<sup>22)</sup>, 「여성」<sup>23)</sup>, 「삼천리」<sup>24)</sup>이며 신문은 동아일보<sup>25)</sup>, 조선일보<sup>26)</sup>로 염색 및 복식을 주제로 한 기사를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현대의 대표적인 색이름은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관용 색이름 153개와 KS-관용색명 외에 현재 섬유·패션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관용색명 9개를 추가하여 총 16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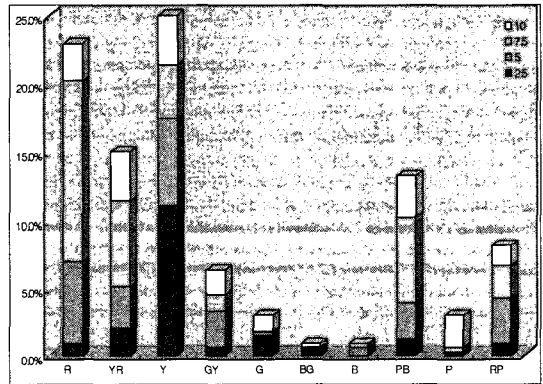
의 색이름을 선정하였다.

### 3.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른 한국 복식색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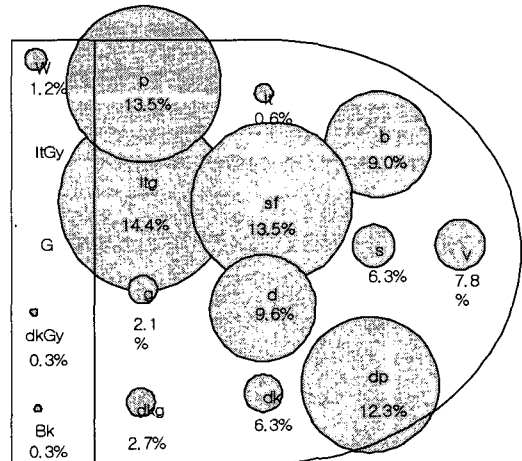
#### 1)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른 한국 복식색채의 정량적 특성분석

##### (1) 조선복식의 색상 및 색조 분석

조선 복식색채의 특성 분석을 위해 수집된 색채 데이터는 총 335색으로, 주조색이 49색, 보조색은 286색이었다. 분석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색상은 Y(24.9%), R(22.8%), YR(15%), PB(13.2%), RP(8.1%)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주조색은



〈그림 1〉 조선 복식색채의 40색상 분포



〈그림 2〉 조선 복식색채의 색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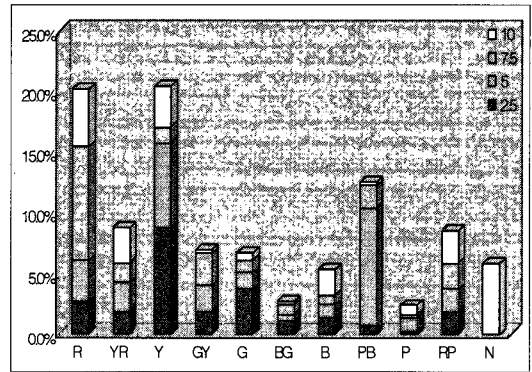
YR의 빈도가 높았으며 보조색은 인접색상인 Y, R의 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배색이 주로 사용된 저고리의 경우 2색 배색 중 유사색상 배색을 주로 사용하며, 색동과 같이 다색 배색이 사용된 경우에도 깃, 고름, 결마기, 끝동 등은 유사색상 배색을 사용하고 소매에 유사색과 반대색을 섞어 배색하는 전통적 배색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선복식의 채도를 분석한 결과 ltg(14.4%), p(13.5%)과 sf(13.5%), dp(12.3%), d(9.6%), b(9.0%)의 순서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차분한 색감을 나타냈다(그림 2). 주조색과 보조색에 따른 채도의 전체적인 분포는 유사했으나 v색조는 주조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보조색에서는 sf, dp색조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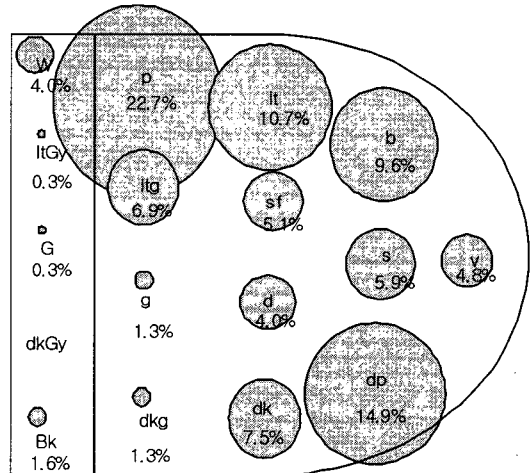
색상과 색조 분석 결과, YR은 ltg와 p, sf의 사용 빈도가 높아 차분하며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특징을 보였다. 이는 주로 모시적삼 등의 재료색인 소색(素色)으로 조선의 백의 선화사상 및 친자연주의 사상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R은 dp와 s, v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평상복에서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dp가, 예복 및 궁중복 등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v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조색의 경우 YR, R, PB, Y의 빈도가 높고 보조색은 주조색에 비하여 색상의 사용 범위가 넓은 특징을 보였는데, 그 중 Y, GY, G, BG의 sf의 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조색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던 P, RP는 보조색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 보조색은 오간색을 포함한 다양한 색상과 폭 넓은 색조를 사용하여 주조색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근대 한국복식의 색상 및 색조 분석

근대 복식색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색채데이터는 총 379색이었으며 주조색이 226색, 보조색이 153색이었다. 복식색채의 색상은 Y(20.4%), R(20.2%), PB(12.5%), YR(8.8%), RP(8.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그 중 Y와 R은 전체의 40.6%를 차지하였다(그림 3). 근대 복식색채는 조선복식의 대표 주조색이었던 YR이 감소하고 무채색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었다. 무채색의 경우 조선에서는 여



〈그림 3〉 근대 복식색채의 40색상 분포



〈그림 4〉 근대 복식색채의 색조 분포

성복식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근대 서양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주조색으로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주조색과 보조색의 분석 결과, 주조색은 Y가 23.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G, GY와 B가 증가하였다. 이는 근대의 색채관이 오정색 위주의 관념적 색채관에서 색채의 다양화 및 개인의 미적선호에 따른 색채의 사용이 강화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색조는 p(22.7%), dp(14.9%), lt(10.7%), b(9.6%)로 조선에 비하여 명도가 밝고 색상과 색조가 다양화되었으며 오방색 중심의 색채사용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4). RP는 조선복식에서 보조색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근대복식에서 주조색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검정의 빈도가 늘어나

는 경향을 보였다. 검정은 조선시대에는 여성복식에 사용되지 않았던 색상이었으나 근대 신교육문화의 움직임과 더불어 학생복에 사용되었으며, 신지식·신문화의 상징적인 색상으로 변하여 여성복식에 점차 사용되는 빈도가 늘어났다.

**(3) 현대 한국복식의 색상 및 색조 분석**

분석에 사용된 현대 복식색채는 총 821개로 색상은 R(22.4%), YR(19.4%), PB(11.7%), Y(7.8%), RP(7.7%), P(6.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조색(520색)과 보조색(301색)에서 색상 차는 크지 않았다(그림 5). 현대복식의 색조는 g(13.3%), ltg(12.2%), p(11.5%), dkg(10.5%)의 순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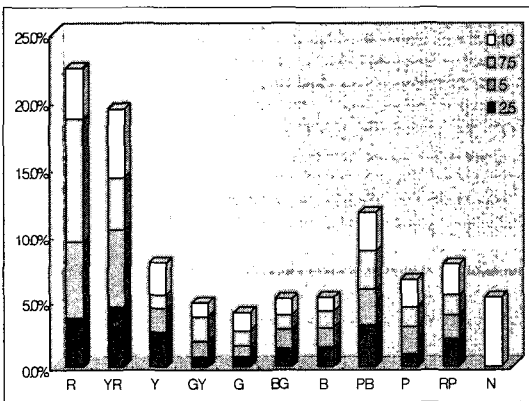
조선·근대와 달리 저채도의 다양한 색채가 선호되는 특징을 보였다(그림 6).

특히 dk, dkg, g, ltg영역에 전체 색상이 모두 고른 분포를 보였고 BG의 경우 조선과 근대에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던 색상이 저채도를 중심으로 빈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다. R은 전 색조 영역에서 고른 빈도를 보였고 조선과 근대에 이어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으나, Y는 근대에 비하여 활용빈도가 매우 감소되었다. 이와 반대로 YR은 증명도와 고명도 범위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무채색의 사용증가는 근대 이후 지속되는 현상으로 근대에 비하여 Bk외에 dkGy의 사용이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현대 복식색채에서 g의 증가는 주조색에서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시대 채도가 재료 특성에 의한 ltg색조를 보인 것과 달리 현대는 발달된 염색기법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발색을 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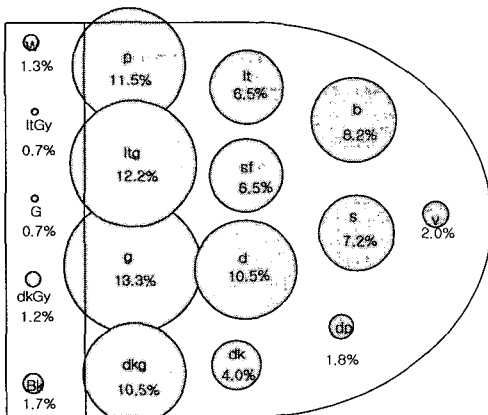
현대 복식색채에서 g색조가 증가하고 남성적인 색상으로 여겨져 왔던 무채색의 사용이 증가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기계화, 산업화의 영향 및 여성의 사회진출과 전통적 여성의 성역할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4)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른 한국 복식의 색상 및 색조 분석**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조선복식의 대표적 색상은 R, YR, Y, PB, RP 색상으로 근대, 현대에 비하여 R, Y가 특징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근대의 대표적 색상군은 R, Y, PB, RP로 YR색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기였다. 근대복식의 대표적 색상이 조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근대의 가장 특징적인 색상 변화는 GY, G의 비율이다. 특히 G계열의 색상은 조선과 현대의 전체 복식색채 대비 출현 비율에 비하여서도 월등히 높은 차이를 보여 근대 복식의 가장 특징적인 색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대표적 색상군은 R, YR, PB, N이다. YR의 경우 조선과 근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과 근대 등 문화 단계별로 가장 비중 있던 R색상이 YR계열로 바뀌는 특징을 보였다. 현대 복식색채



〈그림 5〉 현대 복식색채의 40색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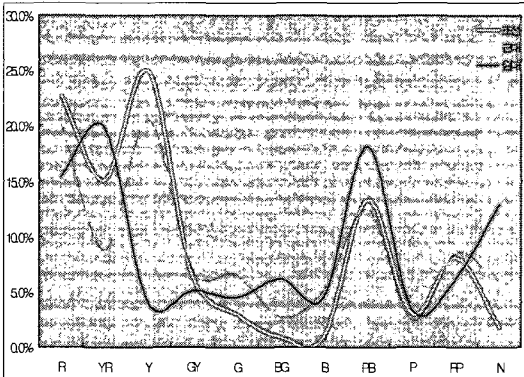
〈그림 6〉 현대복식의 색조 분포

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조선, 근대와 달리 무채색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조선과 근대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BG계열의 색상의 비율도 높아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색조는 그림 8과 같이 조선복식이 p, ltg, sf, dp색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중 sf, ltg색조 비율은 근대와 현대에 비하여 매우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근대복식의 특징적 색조는 p, ltg, lt, b, dp으로 조선과 현대에 비하여 p, lt, b색조의 사용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대복식의 특징적인 색조는 p, g, dkg, d, s, dkGy, Bk이다. 이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g, dkg와 같은 g색조군의 증가이다. 또한 dkGy, Bk와 같은 무채색의 사용 비중이 매우 커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밝은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조선은 sf색조의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근대에는 lt, b 색조를

주로 사용하였고, 현대에는 d, s 영역으로 색조 영역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두운 색조는 조선이 dp, dk 색조가 주로 사용된데 비하여 근대는 dp, dk와 Bk을 사용하였다. 현대의 어두운 색조는 dk보다는 dkg, g색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dkGy, Bk의 사용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색조의 변화 특성은 R, YR, Y, PB와 같이 조선 이후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색상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염료의 차이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문화의 변화에 따른 색조의 선호 및 색채t사용에 대한 감성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색상과 색조특성을 종합해 볼 때 조선복식의 가장 특징적인 색채는 v, dp색조의 R색상, p, ltg색조의 YR, Y색상, sf색조의 Y색상, d, dp색조의 PB색상 그리고 b색조의 RP색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근대 여성복식의 대표적인 색상과 색조영역은 dp색조의 R색상, v색조와 p색조의 YR, Y, GY, p색조의 G색상, lt, b색조의 G, BG, RP색상 그리고 dp, v색조의 PB색상이다. 현대 여성복식의 가장 특징적인 색채는 브라운 계열인 g, dkg, ltg 색조의 YR색상과 d, dkg, g, ltg색조의 BG색상, g, ltg, p, d색조의 PB색상 그리고 Gy, dkGy를 중심으로 한 무채색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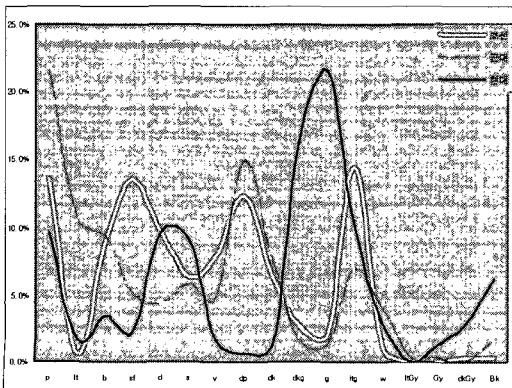


〈그림 7〉 문화의 단계에 따른 복식색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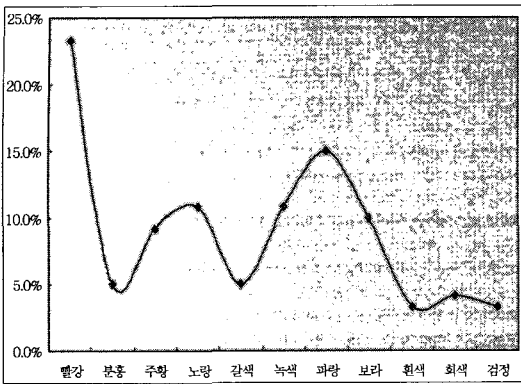
## 2)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른 한국 복식색채의 정성적 특성분석

### (1) 조선 관용색명의 특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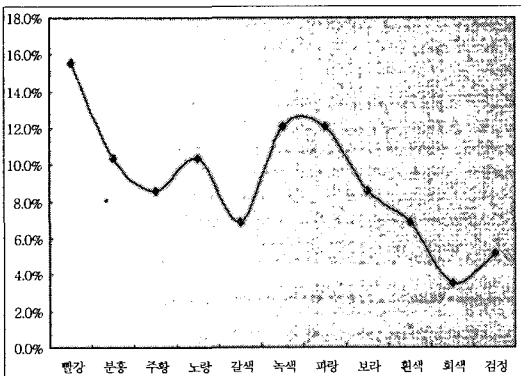
조선 복식색채의 감성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관용색명은 총 117개이며, 이들을 기본색 영역 11색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빨강이 22.5%로 가장 많았으며 파랑 15.0%, 노랑과 녹색이 10.8%, 그 다음은 보라가 10.0%, 주황이 9.2%로 나타났다 〈그림 9〉. 조선시대 관용색명은 오방색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며, 중간색의 명칭은 주홍색(朱紅色)이나 적황색(赤黃色)과 같이 색의 혼합에 사용된 기본색을 같이 표기함으로써 색이름을 대신하였다. 이는 음양오행사상의 정색(正色) 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색이름 중 분화가 활발했던 기본색 영역은 빨강과 파랑이었으며 그 다음은 보라였



〈그림 8〉 문화의 단계에 따른 복식색조 비교



〈그림 9〉 기본색 영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관용색명 색상분포



〈그림 10〉 기본색 영역을 중심으로 한 근대 관용색명 색상분포

다. 색이름이 다양하였다는 것은 특정 문화권에서 그 만큼 그 색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빨강과 파랑, 보라가 다양화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조선복식의 정량적 색채특성 분석 결과와 달리 보라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선복식 색채데이터가 사대부 이상의 여성복에 국한한 것에 비하여 관용색명의 수집은 고문헌에 의거하여 수집하였으므로 분석한 문헌들의 내용이 주로 예복 및 관복의 색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1〉에서와 같이, 빨강의 색이름 표현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적(赤)과 주(朱) 보다는 홍(紅)을 선호하여 빨강을 표현한 25개 색이름 중 13개의

색이름이 홍색(紅色)을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빨강은 다른 기본색에 비하여 명·채도에 따른 색이름의 세분화가 많이 일어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복색 중 높은 비중을 가진 색상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며, 빨강의 선명도는 조선의 정색관념을 바탕으로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혼색이 되지 않고 탁하지 않은 선명한 빨강은 높은 지위의 상징이었고 주로 왕복에 사용되었다. 오방색 중 하나인 파랑은 조선복식에서 비중 있는 기본색 중 하나로 색이름의 수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색이름의 다양성에 비하여 명도와 채도에 따른 색이름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특징을 지닌다. 파랑의 색이름은 순색이나, 밝기 보다는 진하고 깊이 있는 색감을 내는 것에 중요도를 부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파랑 계열의 색이름 중 조신(朝臣)의 의복색으로 사용되었던 추색(緗色)은 '붉은 빛을 띤 푸른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쪽을 이용한 농색염을 8회 이상해서 얻는 검정에 가까운 색으로 빨강이 선명도를 중시하였던 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량적 분석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던 노랑 계열의 색이름 특징은 명황색(明黃色), 담황색(淡黃色)을 제외하고 색의 명도나 채도에 의한 색이름의 분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노랑이 실제의 사용 빈도에 비하여 기본색으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색상이었으며 염색에 의한 발색보다는 소색 등과 같이 재료색으로 사용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의 관용색명은 식물, 동물 등 구체적 사물의 연상에 의한 색이름이 50개로 가장 많았으며, 명·채도에 의한 색이름 표현이 27개였다. 또한 이들 중 추향색(秋香色)과 같은 추상적 이미지의 표현어도 5개 나타나 근대, 현대의 색이름과는 차별적 특성을 보였다. 추상적 이미지에 의한 색이름은 주로 YR 계열의 색상이 많았는데 이는 가을의 계절적 이미지와 색상 이미지를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관용색명의 특징은 오방색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기본 색이름의 분화는 근, 현대에 비하여 다양화되지 못하였으나 시각적으로 유사한 색영역 내에서도 사용된 염재의 종류 및 발색의 결과에 따

<표 1> 조선시대 관음색명의 표현 이미지에 따른 분류

기본색 영역	중심 색이름		구상적 이미지 표현	추상적 이미지 표현	명도 계도의 표현
	단색	혼합색			
빨강	주색(朱色) 적색(赤色) 홍색(紅色) 비색(緋色)	홍황색(紅黃色) 주홍색(朱紅色) 홍적색(紅赤色) 적자색(赤紫色) 자주색(紫朱色)	적토색(赤土色), 강색(絳色), 휴색(靛色), 다자색(茶紫色), 장단(長丹), 반홍색(礬紅色)	괴색 (壞色)	대홍색(大紅色), 소홍색(小紅色), 담주색(淡朱色), 선홍색(鮮紅色), 흑홍(黑紅)
	4색	5색	9색	2색	5색
분홍			연지색(臙脂色), 육색(肉色), 도홍색(桃紅色)	훈색 (緋色)	심홍색(深紅色), 진홍색(眞紅色), 은홍색(殷紅色), 분홍색(粉紅色),
	0색	0색	3색	1색	4색
주황		적황색(赤黃色)	행황색(杏黃色), 호박색(琥珀色), 토황색(土黃色), 목홍색(木紅色), 반홍색(礬紅色), 자황색(紫黃色)		담주색(淡朱色)
	0색	1색	6색	0색	1색
노랑	황색(黃色) 상색(緗色)	자황색(赭黃色)	지황색(芝黃色), 유허색(驢黃色), 치자색(梔子色), 아황색(鵝黃色), 두록색(豆綠色), 소색(素色), 금황색(金黃色), 송화색(松花色)		담황색(淡黃色)
	2색	1색	8색	0색	1색
갈색	갈색(褐色)		다갈색(茶褐色), 토색(土色), 심향색(沈香色)	추향색 (秋香色)	흑갈색(黑褐色), 회갈색(灰褐色)
	1색	0색	4색	1색	2색
녹색	녹색(綠色)	청록색(靑綠色)	초록색(草綠色), 유훈색(柳綠色), 양록색(洋綠色), 춘유록색(春柳綠色), 유청색(柳靑色), 하엽(夏葉), 취담색(翠藍色), 비색(翡色)		진초록색(眞草綠色), 명록색(明綠色), 명황색(明黃色) 연두색(軟豆色), 흑록색(黑綠色)
	1색	1색	8색	0색	5색
파랑	청색(靑色) 감색(紺色) 벽색(碧色) 남색(藍色)	벽청색(碧靑色) 청현색(靑玄色) 벽람색(碧藍色)	옥색(玉色), 천청색(天靑色), 아청색(鵝靑色), 양람색(洋藍色)		담청색(淡靑色), 흑청색(黑靑色), 군청색(群靑色), 연람색(軟藍色)
	4색	3색	4색	0색	4색
보라	보라색 (靑羅色) 자색(紫色) 추색(緗色)	청자색(靑紫色) 홍람색(紅藍色) 벽자색(碧紫色)	포도색(葡萄色)		담자색(淡紫色), 회보라색(灰靑羅色), 멸자색(滅紫色), 숙람색(熟藍色)
	3색	3색	1색	0색	4색
흰색	백색(白色)		설백색(雪白色), 지백색(紙白色), 유백색(乳白色)		
	1색	0색	3색	0색	0색
회색	회색(灰色)		연지회색(臙脂灰色), 구색(鳩色), 치색(緗色)		
	1색	0색	3색	0색	0색
검정	흑색(黑色) 현색(玄色)		오색(烏色)	조색 (阜色)	
	2색	0색	1색	1색	0색
계	19색	14색	49색	4색	28색



른 명도, 채도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매우 민감한 차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사한 색상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였으며 그 차이는 명도와 채도 등에 의한 것이 많았다. 또한 색이름에 추상적 명칭을 사용하는 등 감성적인 사용과 동시에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 색채의 사용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2) 근대 관용색명의 특성 분석

근대는 조선 말기 이후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한문에서 한글 위주로 색이름이 변화하는 단계로, 1910-20년대에는 대부분 한문과 한글이 병행되었으며, 1930년대 신문에는 한문과 한글이, 여성지는 한글이 주가 되었고, 1940년대에는 일본어의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 근대 색이름의 가장 큰 특성 중 하

<표 2> 근대 관용색명의 표현이미지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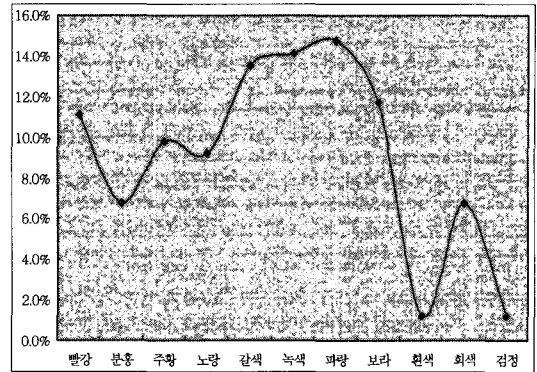
기본색 영역	중심 색이름		구상적 이미지 표현	추상적 이미지 표현	명도·채도 표현
	단색	혼합색			
빨강	홍(紅), 적(赤), 빨근색		다홍색(茶紅色) 다홍색(多紅色)	칠홍색(柒紅色)	담홍색(淡紅色),
	3색	0색	2색	1색	1색
분홍			앵도빛, 장미색		진홍, 연분홍, 분홍색
	0색	0색	2색		3색
주황			황금(黃金)빛, 금빛, 오렌지빛, 살빛, 등색(橙色)		
	0색	0색	5색	0색	0색
노랑	황색, 노란빛, 누른빛		레몬빛		농황색, 창백색
	3색	0색	1색	0색	2색
갈색	갈색		다갈색(茶褐色), 다색(茶色), 초콜릿색		
	1색	0색	3색	0색	0색
녹색	녹색	록황색	초색, 유록빛, 수박빛		연록색, 연두빛
	1색	1색	3색	0색	2색
파랑	푸른색, 청(靑), 남색(藍色)		수색, 하늘색, 옥색		
	3색	0색	3색	0색	0색
보라	보라빛 자지빛		포도빛, 바울렐빛		연(軟)보라빛, 담자색(淡紫色), 진한자주빛, 여튼자주빛
	2색	0색	2색	0색	4색
흰색	백, 흰빛		구리무빛, 크림색		
	2색	0색	2색	0색	0색
회색	회색				검회색
	1색	0색	0색	0색	1색
검정	흑색(黑色) 엷은색				
	2색	0색	0색	0색	0색
계	18색	1색	23색	1색	13색

나는 색이름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다는 점인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색이름의 사용빈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색이름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문물의 유입 및 일제강점과 수탈 등과 같은 정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불안정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래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영어의 한글 표현이 고유색명에 추가되었는데, 잡지의 기사 등에 자주 등장한 색명으로는 오렌지빛, 초콜레트색, 레몬빛, 바울렐빛, 구리무빛(크림색) 등이 있어 전반적인 생활문화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근대 관용색명의 변화 중 하나는 분홍의 색이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근대 이후 분홍이 점차 기본색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조선시대 오정색의 하나로 색이름의 분화가 활발했던 파랑의 색이름이 근대에는 출현 빈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그림 10),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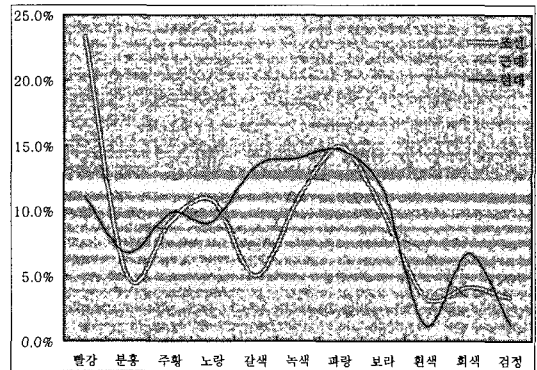
근대 관용색명은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고유색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색의 명·채도 표현 역시 '농(濃), 담(淡), 연(軟), 진(眞), 여튼' 과 같은 접두사를 사용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글을 중심으로 한 표기와 외래어를 사용한 색이름이 증가함에 따라 오방색을 중심으로 했던 기본색 영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생활·의생활 등 실생활 속에서 외래문화의 일상 생활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났으며, 천연염색에서 나아가 고명도, 고채도의 인공염료에 의한 색채의 사용이 범용화 되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근대 관용색명의 변화는 색채의 사용에 있어 더 이상 정색관념을 중심으로 한 음양 오행사상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념적이며 상징적인 색채의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 현대 관용색명의 특성 분석

현대 관용색명은 한국산업규격의 관용 색이름과 현재 섬유·패션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관용색명을 추가하여 총 162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관용색명 162개 중 외래어 표기의 색이름은 전체의 46%인 75개였으며 고유색명에 의거하지 않고 현대에 와서 새롭게 사용되는 한글 표



<그림 11> 기본색 영역을 중심으로 한 현대 관용색명 색상분포



<그림 12> 기본색 영역을 중심으로 한 관용색명의 통시적 비교

기의 색이름은 24개(14.7%), 나머지 색이름은 조선시대 이후 사용된 색이름과 이를 한글식으로 표기한 색이름으로 구성되었다. 현대 관용색명의 색상별 색이름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그림 11과 같이 파랑 14.7%, 녹색 14.1%, 갈색 13.5%, 빨강 11.0%, 주황 9.8%, 노랑 9.2%의 순서를 보였다. 현대의 관용색명은 조선과 근대에 비하여 빨강의 색이름이 감소하고 파랑, 녹색, 갈색은 증가하였는데 이중 녹색과 갈색은 현대 자연주의 경향의 패션디자인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대 관용색명의 특성 중 하나는 명·채도를 표현한 관용색명이 전체의 7.4%로 조선시대(23.7%)·근대(22%)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본색을 중심으로 명도·채도를 조절해 색이름을 붙였던 조선시대, 근대와 달리 현대에는 색채의 기본색 영역이 확장되어

기본색 수가 13색으로 늘었고, 정확한 색 재현을 위해 각각의 색명을 별도로 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4)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른 관용색명의 특성 분석

조선시대 이후 현대까지의 관용색명을 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색이름의 수는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12). 조선시대 113색에 비해 근대는 62색으로 색이름의 출현 빈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고 이 후 현대의 관용색명의 수는 165색으로 급증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색이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화적인 발달 및 안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던 근대의 문학작품 및 신문사설 등에서 색채의 묘사 등 감성적인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빨강의 관용색명은 조선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현대에는 다른 기본색 영역에 비하여 그 비율이 감소되는 특징을 보였다. 파랑은 조선과 근·현대에 모두 높은 빈도를 보여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도 변치 않는 선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의 색이름은 중심 색이름 중 혼합색의 분포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많았는데 이는 오방색에 기준하여 관념적이며 제한된 색이름을 중심으로 색이름이 분화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명·채도를 표현한 색이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근대 색이름의 유형분포는 조선에 비하여 단색의 중심 색이름 비중이 조금 높은 것을 빼고 전체적 유형은 조선의 색이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문물의 유입에 따른 생활문화의 변화가 색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등 문화의 가시적 변화를 표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조선의 색이름과 같이 기본색을 중심으로 명·채도를 표현한 색이름이 많이 사용되는 조선의 색이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색이름은 조선·근대와 달리 기본색을 한정짓지 않고 구체적 사물을 통해 색채이미지를 직

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며, 기본색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심 색이름에서 부터 세분화되어 명·채도를 표현했던 색이름의 빈도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또한 구체적 사물에서 유래된 색이름의 지속적 증가는 현대사회의 산업화의 특성 중 하나로 정확한 색채 재현 및 색상의 활용을 위하여 미세한 색차를 보이는 색이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대 색이름의 특징 중 하나는 다문화 사회의 특징에 기인하여 외래어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외래어 관용색명의 증가는 색채어를 통한 감성의 공유와 상징적 표현 방식의 근원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색채감성의 표현 범위가 여러 문화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대의 다양한 색이름 분화는 외래문화의 유입 뿐 아니라 염색법의 발달,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개성화로 인한 색채 영역의 확장의 필요성 등 사회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3) 문화의 통시적 단계 별 한국 복식색채 특성

문화의 유입과 변화에 따른 기호로서의 복식색채의 특성 변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복식색채의 정량적이며 정성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선 복식색채는 첫째,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 색체계와 색상·색조의 조화에 따른 색, 그리고 오방색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보조색을 사용했다는 차별적 특징을 나타냈다. 관념적 색채의 대표색인 R과 PB는 주로 dp, s, v, d색조에 집중되어 사용된 반면 보조색은 오간색을 포함하여 다양한 색상과 색조 영역에 분포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의 관용색명에서도 나타나 빨강의 색이름이 '홍색'을 중심으로 분화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대홍색(大紅色)과 소홍색(小紅色)과 같이 홍색보다 얼마나 더 선명한가 혹은 덜 선명한가로 색이름을 지칭하는 등 색채의 선명함을 중시하였다. 또한 파랑의 색이름은 담청색(淡靑色), 흑청색(黑淸色) 등과 같이 깊이 있고 진한 색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며 분화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 복식색채의 두 번째 특징은 중·고명도와 중·저채도의 색채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표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식물성 염료를 주

로 사용한 천연염색이 대부분이었던 기술적 배경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던 자연친화적 사상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여성복의 경우 Y, YR색상의 ltg, p색조의 빈도가 높았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대 복식색채의 특성은 크게 관념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념적 특성에 의한 복식색채의 변화는 첫째, 오방색을 중심으로 하였던 조선의 관념적 색채관에서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GY, G, BG, 무채색 등의 다양한 색상이 여성복 주조색으로 사용되었으며 색이름에 있어서도 레몬빛, 오렌지빛, 초콜레트색, 바울렛빛 등 색채의 사용 범위가 확장된 것과 관계

가 있다. 복식 색채영역의 확장은 염색기술 및 염료의 발달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오방색 등 전통적 색채관이 의미했던 음양오행사상 중심의 관념체계, 복색을 통해 표현되었던 유교사상 및 계급주의적 관념 등의 변화 및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근대 여성복에서 lt, b색조의 밝고 화사한 색채의 사용이 증가했던 현상은, 주목성 있는 색채의 사용으로 새로운 사회주체로서의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통문화와 다른 특성의 신문물을 받아들임에 있어, 근본적인 형태의 변화보다는 가시적으로 강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색채를 먼저 받아들임으로서 새로운 문화와의 순차적인 수용 및 결합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표 3>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른 한국 복식색채의 특성

특성 구분	문화 단계 별 복식색채 특성	
	색채의 정량적 특성	색채의 정성적 특성
조선	Y, YR색상의 ltg, p, sf색조 R, PB색상의 dp, s, v, d색조 오정색의 주조색과 오간색의 보조색 사용 낮은 비율의 주조색 중·고명도와 중·저채도 색채	식물명에서 유래한 색이름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기본색 이름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한 색이름 사용
근대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인 색채의 사용 한정된 주조색 영역, 배색 및 장식 등 보조색의 다양한 색채영역 천연염색에 따른 중·저채도의 발색 감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색이름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 색이름의 분화	한문 색이름의 한글화 외래어 색이름의 출현 단색 중심의 기본색이름 빈도 높음 명·채도의 표현을 통한 색이름 사용
현대	dk, dkg, g, ltg 색조 등 저채도 색채의 증가 dkGy색상의 사용이 증가 YR색상의 증명도와 고명도 범위에서 높은 증가율	관용색명의 증가 외래어 색이름의 비증증대 무채색 색이름의 증가 구상적 이미지를 표현한 색이름 증가
	색채 영역의 확장 세계화, 다문화적 특성을 표현하는 색이름 색채 감성의 문화적 경계의 확대 및 중첩 산업화, 현대화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무채색 색이름의 세분화 사물의 구체적 이름을 통한 직접적인 색채이미지 전달	

이러한 경향은 조선의 전통적 색채를 사용한 양장의 착용이 아니라, 화려한 색채의 수입 양장지를 사용한 한복을 만들고 착용함으로써 신문화의 수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던 방법으로 나타났다. 신문화의 특성부여를 위해 색채를 사용한 근대 복식색채의 특성은 서구문화와의 내적인 결합이 아닌 표피적인 차용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면은 아직까지 조선의 관념적인 사상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근대 복식색채의 특성은 문화의 산업·기술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례복과 궁중예복을 제외하고 천연염료에 의한 염색으로 채도가 낮은 복식색채의 비중이 컸던 조선과 달리 근대의 복식색채는 인공염료에 의한 발색으로 채도와 명도가 올라간 특징을 보인다.

현대의 복식색채 특성 중 하나는 색채의 다양화와 색이름의 증가이다. 색상의 다양화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dkGy색상과 g, dkg, ltg 등 저채도 색채의 증가이다. 이러한 현상은 발달된 염색 기술을 통한 감성적 색채 표현이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조선의 ltg 색조 특성과는 차별되는 현상으로, 현대 관용색명의 무채색 색이름의 세분화 현상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현대 복식색채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다문화적 성향으로, 색채를 받아들이고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규칙과 틀에 매이지 않으며 색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근대 이후 음양오행사상 등 관념적 색채사용이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색이름의 분화에서도 기본색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개별적인 색이름 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개별적 색이름의 분화는 주로 외래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래어 관용색명의 높은 비중은 색이름을 통한 색의 연상과 이미지의 공유가 더 이상 한국의 문화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다양화, 세분화되는 현대 복식색채의 특성은 다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화된 감성을 차별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과 근·현대의 한국 복식색채를 조선에서 근·현대의 문화기호로 인식하고 문화적 변화에 따른 한국 복식색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량적 복식색채의 분석결과 조선 복식의 대표적 색상은 R, YR, Y, PB, RP 색상으로 근대, 현대에 비하여 R, Y가 특징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색조는 p, ltg, sf, dp색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sf 영역의 색조 비율은 근대와 현대에 비하여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ltg색조의 비율도 근·현대에 비하여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음양오행사상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 색체계와 친자연주의적 경향과 색채선호에 따른 활용론적 색채의 차별적 색체계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색이름을 통한 색채의 감성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의 관용색명은 오방색 중심의 기본색을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빨강, 파랑, 보라의 색이름 분화가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색이름의 특성으로는 명·채도를 표현하는 색이름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홍색'을 중심으로 한 빨강의 색이름 분화가 특징적이었으며 색이름의 분화는 정색관념에 따라 선명도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 복식색채의 특징은 음양오행사상과 정색관념이 색채의 사용과 색이름의 분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었으며 색이름의 중요도와 그 활용은 유교사상에 따른 계급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 근대복식의 대표적 색상군은 R, Y, PB, RP로 YR색상 비중이 조선·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였으며 G 계열의 색상은 조선과 현대의 빈도에 비하여 특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대복식의 가장 특징적인 색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근대의 특징적 색조는 p, ltg, lt, b, dp으로 조선과 현대에 비하여 p, lt, b색조의 사용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구문화권의 아르데코의 유행경향과 같은 색채 트렌드를 보이는 등 서구문화의 유입과 조선의 전통문화가 공존했던 시대적 특징과 인공염료, 합성섬유 등 신기술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Bk색상의 주조색으로의 등장은 한국 복식문화 전반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 복식색채와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새로운 색채경향의 대두는 근대 관용색명의 특성에서도 나타나 신문화와 전통문화의 이중적 사회구조를 가졌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즉, 근대의 색이름은 전체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았고, 외래문화의 유입과 생활문화의 변화로 인한 외래어 색이름이 증가했으며 합성염료 사용에 따른 직물 색상의 변화, 밝고, 색감을 강조하는 색이름이 등장하는 등 정색관념을 탈피해 가는 새로운 색채관의 형성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현대복식의 대표적인 색상군은 R, YR, PB, N으로 조선·근대와 달리 무채색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색조의 측면에서는 g, dkg와 같은 g색조군의 증가와 dkGy, Bk와 같은 무채색의 사용 비중이 매우 커진 특징을 보였다. 현대의 관용색명을 분석한 결과 현대의 색이름은 색이름의 수와 표현 이미지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전통적 색이름의 관념이 점차 희석되고 외래어의 사용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띄고 있는데 이는 색이름에 의한 색의 연상과 이미지의 공유가 한국의 문화권에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화, 세계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색 중에서는 갈색, 회색의 색이름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중 회색은 산업화, 현대화, 미니멀리즘 등의 영향으로 재료색, 현대적 이미지색 등으로 더욱 세분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라 한국 복식 색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색채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복식색채는 문화의 통시적 단계에 따라 색상과 색조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이는 복식색채가 그 시대의 관념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특성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화의 변화에 따른 구성원들의 미의식과 감성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복식색채가 지닌 문화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기호로서의 복식색채 특성 분석을 위하여 시대별 유물의 측색

외에 도록 및 잡지의 복식 이미지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는 정확한 색채의 재현보다는 복식의 색상 및 색조의 특성 변화를 통한 상징성의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1)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 2)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1993). 숙명여대 박물관 도록. 서울: 용지인쇄.
- 3)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록:인촌 김성수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집. 서울: 삼화인쇄.
- 4)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5). 담긴 복식미술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5) 경기도박물관, 자료검색일 2005. 1. 10. <http://www.musenet.or.kr/>
- 6)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1986). 조선시대 복식 별전도록. 서울: 삼성문화인쇄사.
- 7) 국립중앙박물관 (1994). 미국 피바디 에섹스박물관 소장품 '유길준과 개화의 꿈'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 8) 의상, 1965년 5월호~1975년 12월호. 서울: 의상사.
- 9) 의상계, 1968년 9월호. 서울:衣裳界社.
- 10) 한국컬러 앤드 패턴트렌드 센터 (2003). 섬유 패션 분야의 활용색채 조사분석 최종보고서.
- 11) 이신우 (1995). 이신우 작품집; Icinoo's 25th Anniversary Image Book.
- 12) 이영희 (1996). 이영희 작품집; Tying the Two
- 13) 월간 멋, 1984년 5월호~1987년 11월호. 서울: 멋.
- 14) 2001S/S, 2002F/W, 2003S/S, 2003F/W prêt-à-porter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4. 12. 5. <http://www.firstview.com/>
- 15)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1992). 한국 전통 표준색명 및 색상: 제2차 시안. 국립현대미술관.
- 16) 김영숙 (1988).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김묘진 (1992). 한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색채에 관한 고찰-조선시대 궁중의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전은주 (2000). 우리나라 전통복식의 계층별 착용색과 색명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박진숙 (2000). 한국 전통색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실증적 배색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가뎃잡지, 1906년.
- 21) 신여성, 1923년 11월~1934년 4월. 경성: 개관사.
- 22) 별건곤, 1926년 11월~1933년 6월. 경인문화사.
- 23) 여성, 1934년. 경성: 조선일보사.
- 24) 삼천리, 1926년 6월~1942년 7월. 현대사.
- 25) 동아일보, 1926년 1월 5일~1930년 12월 10일 신문.
- 26) 조선일보, 1930년 3월 1일~1935년 3월 1일 신문.